

자료 32. 윤종남토목공학과 총
동문회장 버스광고시위
와 각종 자료와 소송문
과 벌금 통지서

출석요구서

제 2011-00548 호

윤종남 귀하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고발인 이상우등4명)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11. 10. 13. 14:00에 수사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천대학교앞 현수막및 유인물배포와 관련입니다.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경제1팀(☎ 031-750-4235)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편파수사 등으로 담당수사관 교체를 원하실 경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마련된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작성·제출하시고, 경찰에서는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결정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 10. 4.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이종호

사건담당자 경위 이종호

피의자 신분 진술서 제출 및 조사

조사장소: 성남 검찰청 374호 검사실

조사기간: 2일간(6시간20분)

2.13(월) 15:40~17:20(1:40분)

2.14(화) 09:20~12:00 & 16:00~18:00(4:40분)

2012. 2월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진술서

피의자: 윤 중 남

이길여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당사자로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 플랭카드 및 유인물 작성 동기

저는 1990년 2월 경원대학교를 졸업한 경원대 동문입니다.

정책상 학교가 통합하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교명만큼은 일방적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경원대와 가천의과학대학의 경우 규모나 인지도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천대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이처럼 교명이 가천대로 바뀌게 되면 경원대동문에겐 모교가 없어지는 것이고, 특히 경원대재학생에겐 취업 및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경원대졸업생이 10만 명입니다. 동문이 사회에서 30년간 힘들여 쌓아온 경원대 인지도는 한순간 물거품이 되며, 이것은 바로 취업을 앞둔 재학생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굴레입니다.

교명이 바뀌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사람은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후배들이 안타까워서, 후배를 아끼는 선배로써 학교 정문앞에 플랭카드를 설치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플랭카드 및 유인물 내용에 대하여.

플랭카드 및 유인물 내용은 오로지 교명을 지키고자 하는 저의 염원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는 이길여씨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호소한 것이고, 하나는 재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유인물 내용을 볼 때, 한 개의 단어가 아닌 전체 문맥을 이해해 주십시오. 동문입장에서 당연하고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작성한 글이 단어 하나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팔순”, “할머님”이란 표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팔순잔치 또는 할머님이란 존칭 사용이 사회통념상 무엇이 문제인지 반문합니다.

3. 시위활동 경과

2011년9월21일경부터 매일 아침 학교 정문앞에서 플랭카드를 설치하고, 재학생을 상대로 유인물 배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플랭카드는 설치한지 한시간 이내에 학교 교직원들에 의해 수거 당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키고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9월말경에는 경찰이 와서 불법설치물 제거를 요청하였고, 플랭카드를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즉시 성남수정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고, 10월초부터 수정경찰서 정보과 경찰의 입회하에 다시 플랭카드를 설치하였으나,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학교 교직원들은 가위 및 커터칼을 사용하여 플랭카드를 떼어 갔습니다.

힘에 부친 저로서는 10월중순경 플랭카드 설치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1월경 성남시민에게라도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성남시 100번 버스에 교명변경을 반대하는 광고물을 부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맺음 말

지금도 교명을 지키고자 하는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또한 경원대 동문으로써 당연한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여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길여할머님이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길 바랄뿐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앙로 777
전화번호 : (031) 739-4200

4 6 1 - 7 0 5

금동우체국

요금후납

받는사람

경기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923-5 (주)KCE엔
지니어링

윤종남 님

431-080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윤종남 에 대한 명예훼손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함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2013년 04 월 03 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공태구 ㉮

사 건 번 호	2011년 제 32651 호
처 분 일 자	2012년 03월 30일
처 분 죄 명	처 분 결 과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	구약식
모욕	구약식
모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기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923-5 (주)KCE엔지니어링

윤종남



431-080

2097338-609851

형사과 형사약식 3단독

2012-078-2998-49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약 식 명 령

등 본 입 니 다

2012.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

법원주사보 황규석



사 건	2012고약2998 (2011형제32651)	가. 명예훼손 나. 모욕
피 고 인	윤종남(630419-00000000), 기타전문직 주거 경기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923-5 (주)KCE엔지니어링 등록기준지	
주 형 과 부수처분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적용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 선택)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2. 4. 30.

판 사 정 현 경

범 죄 사 실

1. 모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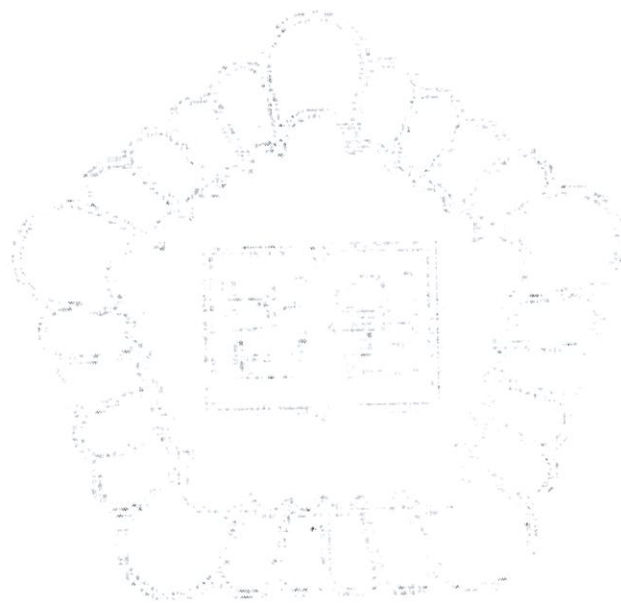
피고인은 2011. 9. 21. 08: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 65에 있는 가천대학교 경원 캠퍼스 정문 앞길에서 위 대학교 총장인 피해자 이길여가 가천대와 경원대를 통합하여 피고인이 졸업한 경원대라는 명칭을 없애고 가천대로 학교명을 변경하려 한다는 이유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하에 "팔순이 지나신 이길여 할머니는 여러분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기 이름 하나 남기고자 10만여 동문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또 있을까요? 북한의 김정일과 다른 점이 있나요? 노망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A4용지) 약 2,000장을 위 학교 학생 등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유인물 약 2,000장을 매일 위 학교 학생 등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4. 08:0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학생들의 등록금이 아닌 입시전형료를 재원으로 하여 대학의 일반적인 홍보를 위하여 2011년도 예산으로 약 32억원을 편성하였을 뿐, 경원대학교의 명칭을가천대학교로 바꾸기 위해 50여억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명! 지금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하에 "오로지 이길여 단 한사람만을 위하여, 모두가 희생을 감수하며, 교명 하나 바꾸고자 50여억원이 쓰여진다면? 그리고 그 돈이 여러분이 알바해서, 또는 부모님이 고생해서 보내주신 등록금으로 쓰여진다면? 무려 80세인 노할머니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큰 돈을 이길여는 자기 돈인양 이런 하찮은, 말도 안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A4용지) 약 1,000장을 위 학교 학생 등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유인물 약 1,000장을 매일 위 학교 학생 등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 822

판 결 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등본입니다.

2012. 8. 23.

법원주사 서 경 식



사 건 2012고정822 명예훼손, 모욕
피 고 인 윤종남 (630419-), 토목설계
주거 서울 송파구 송파동
등록기준지
검 사 공태구(기소), 황윤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서희(국선)
판 결 선 고 2012. 7.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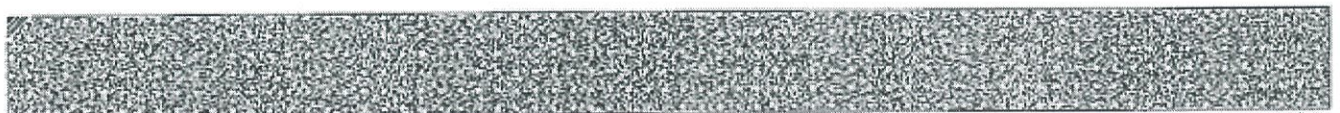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1. 9. 21. 08: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 65에 있는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



퍼스 정문 앞길에서 위 대학교 총장인 피해자 이길여가 가천대와 경원대를 통합하여
 피고인이 졸업한 경원대라는 명칭을 없애고 가천대로 학교명을 변경하려 한다는 이유
 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팔순이 지나신 이길여
 할머니는 여러분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기 이름 하나 남기고자 10만여 동
 문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또 있을까요? 북한의
 김정일과 다른 점이 있나요? 노망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
 재된 유인물(A4용지) 약 2,000장을 위 학교 학생 등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11. 10. 2.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유인물 약 2,000장을 매 평일마다 위 학교
 학생 등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4. 08:0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학생들의 등록금이
 아닌 입시전형료를 재원으로 하여 대학의 일반적인 홍보를 위하여 2011년도 예산으로
 약 32억원을 편성하였을 뿐, 경원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바꾸기 위해 50여억원
 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명! 지금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 아
 래 "오로지 이길여 단 한사람만을 위하여, 모두가 희생을 감수하며, 교명 하나 바꾸고
 자 50여억원이 쓰여진다면? 그리고 그 돈이 여러분이 알바해서, 또는 부모님이 고생해
 서 보내주신 등록금으로 쓰여진다면? 무려 80세인 노할머니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
 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길래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큰 돈을 이길여는 자기
 돈인양 이런 하찮은, 말도 안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
 물(A4용지) 약 1,000장을 위 학교 학생 등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유인물 약 1,000장을 매일 위 학교 학생 등에게 배

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양충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인물(인쇄물, 두번째유인물)

1. 2010회계연도 결산서, 교비회계운영예산서, 2011종합광고대행사 선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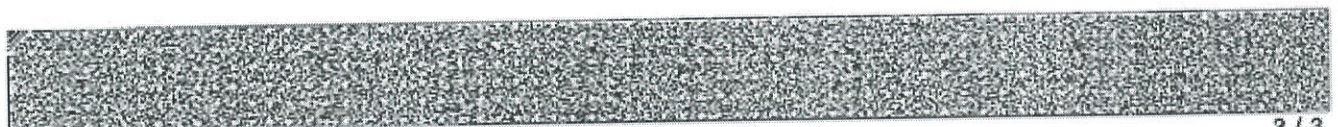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기리 _____



정식재판청구서

		공판절차	
		사건번호	
		재판부	
		20 :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았음 20 영수인 ㉠	
사건	2012 고약 2998(2011형제32651) (죄명) 명예훼손, 모욕 ※ 우측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피고인	성명 : 윤 중 남 송달가능한 주소 : 경기 안양 동안구 호계동 923-5. 호계프라자6층 전화번호 : 031-428-1702 휴대전화: 011-288-9365 이메일 주소 : gujoyun@naver.com		
약식명령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 5 . 22 . 수령하였습니다.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해당란에 V 표시) ☐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기타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분량이 많으면 별지 사용 가능)] 1. 유인물 배포대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한 것이 아닙니다. 2. 유인물의 내용에 대하여: 유인물은 전체 맥락에서 판단해야지, 한두개의 문장만으로 명예훼손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유인물을 작성한사람의 위치, 유인물을 받아보는 대상이 누군지, 교명관련하여 당시 이길여는 적법하였는지, 또한 당시 피고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원고측의 대학홍보 예산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이 제시한 대학홍보예산 32억원의 수입과 지출내역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교명을 바꾸는데 겨우 32억원밖에 안쓰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0여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첨부] 교명관련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작성한 글		
관련사건	☐ 없음 ☐ 있음 [계류중인 기관(경찰,검찰,법원명) : 사건번호 :] ※ 관련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이외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 공소 사실과 관련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사건을 말함		
접수인	2012 . 5 . 24 . 청구인 윤 중 남 ㉠ (피고인과의 관계: 본 인)		

주 ①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구두로 밝히면 됩니다.
참조 : 형소 453, 454, 458, 365

100 상대원 > 중앙 > 정왕 > 잠실

597

G-BUS

NGV 7.7

7.7 리터가 더 절약

G-BUS

국립 서울대학교

NGV 7.7

7.7 리터가 더 절약

100

NGV

7.7

7.7 리터가 더 절약

국립 서울대학교
국립 서울대학교
국립 서울대학교

국립 서울대학교

경기 01597

경원대학교 총장이신 80세 이길녀 할머니!

제발 경원대학교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경원대학교 졸업생-

교과부 민원신청 번호: 1AA-1102-007448

2011.2.7. 질의자 윤중남

질문 제목: 대학통합에 대하여.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의 통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경원대 졸업생입니다. 결코 경원대명칭이 사라지는것만큼은 반대합니다.

굳이 통합반대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통합진행은 대학의 다수관련자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대화도 거부한채 이길여충장 뜻대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때문에 개학과 함께 학교가 시끄러워질것 같습니다. 대학을 담당하는 교과부로서 통합에 문제는 없는지, 대학관련 다수자의 의견을 수용했는지등 학교가 파행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찬아도 현재 상명하복식 의사전달체계로 소통이 없어 교직원의 불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통합명칭이 가천대로 된다는 소문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경원대가 맞다고 봅니다. 제가 잘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통합시 통합에 대한 일정, 인허가조건 및 처리기간등에 대한 자료 그리고 만일 통합관련서류에 허위내용이 있을시 어떤 제재조치가 따르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자: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교육선진화정책관 대학선진화과, 김건섭
(02-2100-6342)

안녕하세요. 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입니다. 먼저 우리부 정책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명은 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는 구성원의 합의가 되었는지, 유사명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인가하고 있습니다. 양 대학 교명 변경시에도 구성원의 합의 등의 절차를 거칠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경원대학교와 가천의대 통합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우리부에 요청된 사항이 없으므로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향후 양 대학간 통합 추진 시 우리부에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교육여건 등 통합에 따른 각종 제반사항에 대해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통폐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선진화과(☎ 02-2100-634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경원인 여러분 !

“통합학교 명칭은 반드시 경원대학교 이어야만 합니다.”

가천대학교로 교명이 바뀌게 되면 ?

교명 변경 순간 30년 전통, 경원대의 모든 것이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가천대 1회 졸업생으로서, 선배가 없는 여러분은 졸업하는 순간부터 홀로써야 됩니다. 입사원서 제출시부터 여러분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가 없는 황량한 사회에서 홀로 선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비빌 언덕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선배들이 없을까? 서러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제가 토목과 1회 졸업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원대의 인지도는 30년간 여러분 선배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절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와 여러분의 아주 소중한 재산입니다.

재학생 여러분

삼성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만약 삼성이 이름을 바꾼다면 영업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대학이 이름을 바꾸면 그 손실은 모두 동문, 교수님, 여러분 몫이 됩니다. 단지 이길여총장 단 한 사람의 호를 남기기 위해 이 모든 사람이 희생을 감수해야 될까요?

개교 이래 작금의 사태는 경원인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길여총장은 자신 한 사람을 위하여 10만여명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산독재와 다른 점이 있나요? 말이 통합이지 규모등으로 볼 때, 사실 경원대가 가천대를 흡수한다고 해야 맞겠지요. 통합의 시너지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경원대를 죽이기 위한 통합이라면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총동문회에서는 관련단체, 매체, 학교, 교과부를 상대로 교명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교수님들도 대응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학교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좋은 학점으로 졸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업한 이후의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에 호소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교명사수를 위한 여러분의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11. 4. 25.

경원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동문회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정보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관 사립대학제도과		
처리기관	최윤정 (02-2100-6931)	민원인 신청번호	
담당자 (연락처)	2011.05.17. 09:13:08	처리기관 접수번호	
접수일	2011.05.24. 23:59:59		
처리 예정일			
민원제목	경원대-가천의과학대 통합교명 심사에 대한 질의		
민원내용 보기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수의 찬성안을 인정한다는 국립대학 통합 담당 사무관님 말씀이 사립대학 통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적인 대 학통합안 허가방침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2. 경원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동문회), 교수협의회가 찬성안 혹은 반대안을 낼 수 있는 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3. (2번 질문이 '예'라는 가정하에) 학교측은 직원 180명과 교수 86%만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4. (2번 질문이 '아니오'라는 가정하에) 찬반의견을 낼 수 있는 구성원 범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5. 학교측이 주장하는 직원 180명과 교수 86%의 동의가 비민주적인 절차, 반강요 혹은 위조된 것이거나 학교측의 불법적 행위[찬반 설문지 절취(竊取)]에 의한 것이라면 원천적으로 무효인지 질의합니다.

현 경원대학교-가천의과학대학교 통합교명 문제는 제3의 교명 공모나 재학생-동문-교수 등 구성원의 찬반투표와 같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무시한채 '가천 이걸여'씨와 그 측근들, 즉 소수 이해관계자의 독단에서 비롯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심의에 임하여 주시길 바 랍니다.

2011.05.24. 15:35:11
 * 답변일
 *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 통폐합 업무 담당자입니다.

우리부는 대학의 통폐합 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인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의 요건은 대학설립운영규 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통폐합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 여 통폐합 후 폐지되는 대학의 학사관리 대책, 학생 및 교직원 보호대책 등이 충분히 수립되었는지, 구성원이 통폐합을 동의하 고 있는지 등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구성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구성원의 범위, 동의 여부의 판단 기준 등을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 내용 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동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 된 구성원 동의서, 통폐합 관련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 및 현지실사시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통폐합의 절차가 합의에 의 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에 대해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학교에서 제출한 신청서에는 구성원 동의서 등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현지실사를 통하여 구성원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 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원대학과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합교명이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민원인의 주장 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시 심의자료로 사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적인 질의가 있다면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 최윤정 사무관(2100-6930)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11. 9. 21

재학생 여러분!!! 제발 **경원대학교**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가천대로 교명이 바뀌게 되면 ?

여러분 선배가 사회에서 땀흘려 이뤄는 30년 전통, 경원대의 모든 것이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동문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특히 사회에 진출하게 될 재학생에겐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은 졸업하는 순간부터 홀로서야 됩니다. 비록 당장은 경원대졸업장을 받겠지만, 없어진 학교의 졸업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입사원서 제출시부터 여러분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선후배가 없는 황량한 사회에서 홀로 선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사회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왜? 일류대 출신들이 사회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정말 똑똑해서? 자기능력으로? 당근 아니죠.^^ 선후배가 밀고 끌어주기 때문이죠.^^ 경원대도 30년의 역사만큼 여러분 선배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재학생 여러분

삼성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만약 삼성이 이름을 바꾼다면 영업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경원대의 인지도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과 나의 아주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교명이 바뀐 책임은 동문과 재학생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학생 몫입니다. 팔순이 지나신 이길여 할머니는 여러분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기 이름 하나 남기고자 10만여 동문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또 있을까요? 북한의 김정일과 다른점이 있나요? 저로서는 “노망”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개교 이래 경원인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말이 좋아 통합이지 사실 경원대가 가천대를 흡수하는 것이죠. 이길여씨는 통합규모에 의한 시너지를 주장하지만, 어차피 무수히 많은 세계의 대학에서 일류대그룹 진입이 어렵다면, 규모보다는 내실화에 충실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는 길입니다.

교명? 물론 지금도! 얼마든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저는 원래 지는 게임은 시작도 안합니다.^^ - 간단합니다. 수업거부가 정답입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이 좋은 날에 강의실에 들어가지 마시고, 캠퍼스에서 가을을 만끽하십시오. 교명이 바뀌었는데도 학교가 조용한 것에 대하여, 외부에서 경원대 학생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불쌍한 재학생들이여! 제발 자신의 인생에 평생의 굴레를 씌우지 마세요! 타 대학이라면 학교가 벌써 뒤집어 졌을 일입니다.

입사원서 제출하면 인사담당자가 1차서류심사시 뭐부터 볼까요? 학점?^^ 당근 No! 교명부터 봅니다.

이 학교의 주인은 총장이 아닙니다. 바로 등록금을 내고 있는(즉, 돈을 주고 있는) 재학생 여러분입니다. 이길여씨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바로 재학생 여러분입니다. 명분만 있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교내에서는 그 무엇이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거부할 수도, 총장실을 점거할 수도, 정문을 통제할 수도... 무엇이 두렵나요? 이것이 바로 재학생의 권리입니다.

경원대학교 1회 졸업생의 눈물의 하소연.

플랭카드 2011. 9. 22~

전철 입구



플랭카드를 걸고, 한두시간 지나면 직원들이 나와서 뜯어가기바람,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었음.

정문에서 길 건너편을 바라본것



길 건너편에서 정문쪽을 바라본것



제663호

옥외집회 (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

① 명 칭	표명반대회	
② 개최 일시	2011. 9. 20 ~ 10. 26 07:30-17:00	
③ 개최 장소 (시위·행진의진로)	성남수정동 북정동 소재 경원대학교 정문 우측 및 건너편 인도	
④ 주최자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redacted]
	성 명 (단체명)	윤종남(강원대 졸업생)
⑤ 접수 일시	2011. 9. 27 11:00	
⑥ 참고 사항	플래카드 4, 유인물 10,000장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2011 년 9월 27일

성 남 수 정 경 찰 서



윤 종 남 귀하

교과부에서 승인한 것은 통합입니다. **교명은 이길여가 그냥 기워 넣은 것이죠.**

- 두번째 유인물

2011. 10. 4

교명! 지금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재학생 여러분! 수원대학교 아시죠?(경원대를 수원대와 비교해서 죄송^^) 네~ 물론 많이 들어서 친근히 알고 있겠죠. 수원대가 예를 들어 조구대학교(임의 설정)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만약 조구대학교를 들었을 때, 어디 지방대나 신생 대학교 정도로 알겠죠! 설령 교명이 바뀐 걸 누가 알게 되더라도, 기존의 수원대만큼 인정을 해주까요? 아마도 조구대 졸업생은 사람 만날 때 마다, 조구대가 수원대의 전신이며, 왜, 교명이 바뀌었는지,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처음 한두번은 괜찮겠지만, 어찌면 평생 그래야 됩니다. 그래도 조구대는 수원대의 이름값을 하긴 어렵겠죠.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죠, 전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팔죠, 만약 삼성이 전성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가정한다면? 매출은 아마도 순식간에 10분의 1로 줄 것이며, 삼성을 다시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는 20년? 수십조원의 광고비가 들지도 모릅니다. 물론 누구도 이런 미친짓은 안하겠지만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올해 초 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가천의대인지, 가천의과학대인지, 아무튼 “가천”이란 말을 처음 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교명변경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몇개월전에 가천대를 무심코 받아들였을지 모르나, 사회에서는 아무도 가천대를 모릅니다. 이제 우물안(캠퍼스) 개구리(재학생)가 졸업해서 가천대를 세상에 알려야 되겠죠. 제가 경원대 1회 졸업생이라서, 직장생활하면서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전철을 제 후배들이 밟는것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명색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가천대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로 자갈밭길 이란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길여 단 한사람만을 위하여, 모두가 희생을 감수하며, 교명 하나 바꾸고자 50여억원이 쓰여진다면? 그리고 그 돈이 여러분이 알바해서, 또는 부모님이 고생해서 보내주신 등록금으로 쓰여진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다시 또 힘들여 알바하고, 부모님께 철없이 또 등록금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려 80세인 노할머니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을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만약 일반회사에서 50억원의 이윤을 남기려면? 이윤이 5%정도이므로, 매출이 1000억원어치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일반회사에서 년50억 이윤을 남긴다면 진~짜 대박난거죠!

이렇게 큰돈을, 이길여는 자기돈인양 이런 하찮은, 말도 안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길여는 처음엔 통합에만 관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명변경 가능성의 빌미를 제공한건 바로 재학생 여러분입니다. 처음엔 재학생의 눈치를 보면서 교명변경건을 꺼냈었는데, 외에는 재학생의 반응이 없었던거죠. 여기서 이길여는 가능성을 읽었고, 결국 무주공산에 깃발을 쉽게 꽂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명변경을 관철시키리라곤 이길여 본인도 전혀 예상을 못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억지로 일을 성사시키려면, 뒷거래가 없을 수야 없었지만...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길여가 제일 무서워할 사람이 재학생임에도, 학생을 수원대학생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이상은 최근 학교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교명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좋은 학점? 학교내에서는 중요하죠! 하지만 졸업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경쟁상대는 동기동창이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대학 졸업생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상대입니다. 그렇다면 변별력의 기준은 뭘까요? 예를 들어 조구대학교(or 가천대학교) 졸업생이 수원대학교(or 경원대학교) 취업생과 동시에 입사원서를 제출한다면 게임은 누가 이길까요? 인사담당자가 그 많은 서류를 볼 때, 수원대(or 경원대)보다 조구대(or 가천대)를 더 선호할까요? 조구대(or 가천대)를 더 선호할까요? 인사담당자도 업무 처리하고 당근 빨리 퇴근하고 싶어하죠. 조구대(or 가천대)출신의 학점과 토익점수가 더 높을수록 좋습니다.^^ 당장은 아닐지언정 입사되라도 경원대보다 조구대(or 가천대)출신이면, 사내에서든 이직시에도 여러분은 진급에서 매우 불리할 것입니다. 이길여 단 한사람 때문에 취직준비, 시험준비하기도 바쁜 수많은 후배들이 이길여가 죽도록 원망스럽습니다. 이길여가 죽도록 원망스럽습니다.

수업거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학교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경원대학교 졸업생의 눈물의 하소연

이미 교과부까지 승인 난 통합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문제는 교명입니다. 교명은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명은 이길여 단 한사람! 단 한사람만 결정하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당신의 손자, 손녀뻘인 재학생의 일생을 망치려 하십니까?

가천대? 저도 1년전만해도 대한민국에 가천대라는 대학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경원대를 알리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가천대를 알리는데 또 다시 30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꼭 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취업준비를 어떻게 하나요? 스펙을 쌓는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토익시험등...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제일 먼저 들어갈 회사부터 3개정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딱 그 정도 만큼만의 스펙만 쌓고, 그 회사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예년에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회사내에 입사관련 정보를 얻을만한 선배직원은 없는지, 또한 면접에 대비하여 그 회사에 대한 최근소식등 자료를 1년 정도는 꾸준히 스크랩해야 되겠죠. 정보시대에 공부만 해서는 어렵겠죠. 물론 사전에 여러 회사들의 채용계획을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구요.

아무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부만하면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도 그랬었구요. 그러나 회사 입사는 다릅니다. 공부만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거 외에도 출신대학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울대졸업장이라면 스펙과 상관없이 기본이상은 먹고 들어가죠. 여러분은 서울대가 아니기 때문에 스펙을 중요시하죠. 가천대졸업생이 쌓은 스펙보다 경원대졸업장이 더 낫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나요? 일류대를 제외하고는 다 같은 대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여러분이 경원대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적어도 경원대졸업장과 가천대졸업장만을 비교할 때는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사회를 몰라서 이름값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으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대학이름의 인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대학의 인지도란? 홍보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전통, 그리고 졸업생수와 비례하죠. 경원대는 30년차, 가천대는 내년이 1년차가 되겠군요.

이길여총장님도 어쩌면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80세 드신 노할머니가 계시다면, 한번 보세요. 나이 80세인 노할머니가 돈, 명예 다 가지신분이 얼마나 사실거라고, 의지도 약하실텐데, 반대를 무릎쓰가며 그 연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교명을 변경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면 주변의 딸랑이들 때문에 노할머니가 오히려 지금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죠.

중이 제머리 못깎죠. 교명! 결국 여러분이 바꿔주면 됩니다. 젊은이답게 지성인답게 경원인답게 **쿨~하게 “수업거부”** 해주세요. 내가 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젊은이는 악을 악이라 비판하고, 선을 선이라고 격려할 수 있어야합니다. 젊은 사람의 특권이죠.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세요!

-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 김대중 전 대통령

다음엔 수업거부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얘기하겠습니다.

경원대학교 졸업생의 눈물의 하소연

수업을 거부하면 정말 재학생에게 불이익이 올까요?

네~ 한명이 거부하면 당근 불이익을 받겠죠. 그런데 다섯명이 거부한다면? 글썄요~. 만약 열명이 거부한다면? 그래도 불이익을 받을까요? 제 생각엔 No!입니다. 10여명이나 되는 학생에게 명분이 뚜렷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일수 부족을 핑계로 불이익을 준다는건 이길여 자신에겐 너무나 불리한 싸움이란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협박과 회유만 있을 뿐이죠.

수업거부의 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째, 통합승인기관인 교과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길여가 교내에서는 제왕처럼 행동하지만, 교과부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와 같죠. 교과부가 경원대 통합을 승인하였죠. 그런데 통합관련 교명건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다면? 교과부내 통합관련 담당자는 당근 질책을 받겠죠. 아마도 담당자는 통합만 승인한 것이고, 교명은 모르는일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담당자는 수업거부문제를 해결하도록 이길여에게 독촉을 할 것이고, 이길여는 가천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게임 끝이죠.

둘째, 언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길여는 일반사람들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될 만큼, 언론에 매우 민감합니다. 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은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이라면 낮 뜨거워서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명을 바꾸는 중이지만, 제발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며 전전긍긍 하고 있죠.

통합승인 이전에 이길여가 언론을 장악하여 이슈화되지 못했다는 소문은 이해가 갑니다만, 정말 그것 때문만이었을까요? 언론은 항상 취재원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디 기사거리 없을까?” 기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취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강다리위에 올라가서 기자한테 전화하면 바로 달려옵니다. 경원대는 재학생이 조용해서, 설령 취재를 와도 카메라에 담을 것이 없어서, 못 오는 것뿐이죠. 수업거부만 해준다면...? 기자들? 바로 달려옵니다.

언론의 힘은 잘 아시죠? 우리 이길여여사님 바로 행복합니다.

셋째, 시너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꼭 많은 학생이 참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시작만 한다면, 눈덩이는 건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이 수업거부만 해준다면? 그동안 억압받아왔던 양심 있는, 학교의 진정한 발전을 바라는 교수님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을 대변해줄 동문도 제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성남시민, 교과부, 언론, 재학생, 교수님, 동문이 모두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이길여를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 바퀴를 굴리고, 지탱하기 위한 바퀴축 중심에 재학생이 있는 거구요.

회사의 사장은 월급까지 쥐가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회사직원(노동조합원)이죠, 여러분은 반대로 학교를 먹여 살리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면...?

11월 총학선거에서 공약으로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러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절대로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으니까요. 수업거부 방법이 궁금하세요? 그냥 교실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보다 효과적인 수업거부방법을 원하신다면 총동문회와 상의해 보세요.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까?

여러분은 바보입니까? 초등학교때부터 공부하여 입학한 대학교가 없어지는데? 자기가 4년동안 다니는 학교가 없어지는데? 인생에 평생 꼬리표인 모교가 없어지는데? 출신 초중고는 사회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지만, 대학은 꼭 물어보죠. 여러분이 경원대를 입학할 때 수선된 대학이 없어질걸 알았다면, 과연 경원대를 들어왔을까요? 이길여는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본인은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른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가장 자유로워야 할 대학에서조차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찾아야 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누군가가 나서주길 바라십니까? 반대로 내가 만나서는데 누가 나서겠냐고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만이 경원대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나요? 아시다시피 총학생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제는 교내에 플랭카드도 걸지 못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를 든 것뿐이지만, 이 모든 것을 승인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길여일까요? NO! 바로 경원대학교 재학생 여러분입니다. 교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여는 지금 재학생 여러분이 가침대를 바꾸는 걸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승인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가만있습니까? 수업거부가 정말 어렵습니까? 친구 몇 명이서 또는 동아리별로 하더라도 그 효과는 컸을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사 면접시, 교명을 사수하기 위하여 앞장섰다면,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관이 뚜렷한 좋은 인재로 평가 받을것입니다.(교외 문제라면 다를수도 있겠지만...)

왜 제가 직접 나서서 하지 않냐고요? 저는 이미 학교를 떠난 졸업생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아침 일찍 교원대 정문앞에 플랭카드 걸고, 유인물 만들어 나눠주는 것 정도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9월22일부터 10월7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정문앞에 플랭카드 걸고, 유인물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플랭카드를 걸자마자 교직원 수십명이 나와서 칼과 가위로 순식간에 떼어갑니다. 매일 반복되었죠. 집회신고서를 제출함으로 담당경찰이 지켜보고 있어도, 그리고 저와 같이 서너명이 플랭카드를 지키고 있어도...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매번 글쓰는 것도 쉽지 않네요. 이젠 재학생 여러분이 할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항상 잊지마세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교관 내밀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총동문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경원대학교 재학생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자료 33. 가칭 총동문회 정상화
대책회의 내용증명서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의 정상화와 통합 대학의 총동문회로 계승, 발전을 위한 성명서

2011년 7월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는 교과부로부터 통합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12년 부터는 가천대학교라는 교명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동문회는 통합 대학의 형식과 내용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향후 통합 대학의 명실상부한 총동문회로의 발전과 아울러 가천의과학대학교의 총동문회와의 통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의 변화를 통한 역할과 지위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역사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현 총동문회 동문회장과 집행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경원 동문들에게 고하는 바입니다.

9대 총동문회에 요구한다.

첫째, 제9대 총동문회 총동문회장은 통합 과정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표명했던 교명사수를 하지 못하면 사퇴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제9대 총동문회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와의 대립과 반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즉각적으로 비상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향후 동문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 및 집행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서는 내용증명으로 발송되며 8월 12일 까지 답변과 8월 26일 이내 총회 소집을 요구한다.

이 무관문은 2011-08-08
제 3137802010019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수신필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립

10만 동문에게 호소합니다.

동문회는 모교의 발전과 후배의 양성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동문회가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은 계속적인 후배 동문들의 유입이며 이것을 부정한다면 결국에는 몇몇 동문들의 친목계 정도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원대학교 총동문회는 통합대학에서 명실상부한 총동문회로서 인정받고 모교의 발전과 후배의 양성을 위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명문제에 집착하여 이러한 책임을 외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도적인 역할로 가천의과학대학교의 총동문회와의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원대학교의 총동문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새로운 총동문회장의 선출과 집행부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의 발전과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동문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동문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정상화 대책회의 공동대표 이진휴

수신: 경원대 임직원 수석부총장 산하 아카데미 G20 총동문회 회장 재로
발신: 서울 신영사 사무국 1호 이진휴

자료 34. 총동문화 답변 내용증명서

내 용 증 명

발신 : 경원대학교 9대 총동문회

수신 :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정상화 대책회의

먼저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정상화 대책회의라는 조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동문회는 정상화 되어 있습니다.

귀 단체는 상임이사회를 열어서 결정되지도 않았으며, 총회는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이름붙이면 다 조직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친목계 하는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비정상화된 동문 몇 분들로 인하여 오히려 교명과 모교를 지키는 싸움에 큰 걸림돌이 됐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귀 단체에서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해 답변 합니다.

첫째, 회장 사퇴 요구에 대해

총동문회는 1월 워크숍과, 3월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통합의 반대가 아닌 교명사수에 찬성하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귀 단체는 총회등에서 의결한 내용을 무시 하고 임의의 괴 단체를 조직하여 오히려 총동문회를 공격, 비방 분열 책동 하였습니다. 이 에 사과 하고,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장의 사퇴 중용이 아니라 다함께 할 수 있는 공론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다른 동문회 결성 이야기에 있어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유지 하기위해 정해진 임기를 수행해 나갈것입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귀 단체의 정통성이 무엇입니까? 교명수호를 위해 노력한 집행부 해체를 요구 할 것이 아니라, 교명수호에 불참하고 오히려 집행부를 공격한 귀 단체의 해체를 요청 합니다. 현 동문회가 비정상이라면 조직으로 들어와 정상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동문간의 분열과 반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8월11일 집행부 회의에서 9월 개회를 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26일 개회는 불가 합니다. 또한 8월8일 내용증명을 보내고 4일 만에(8월 12일 답변 요구) 답변하라면 이는 답변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라 보여 집니다. 실제로 본 내용증명 접수는 8월 18일 날 하였음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끝.

2011년 8월 23일

경 원 대 학 교 9 대 총 동 문



수신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이진휴

발신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조규호

이 우편물은 2011-08-23
제 3490901003933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성남경원대우체국직

자료 35. 정관변경인가서



교육과학기술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법인 가천학원 정관 변경 인가

1. 관련 : 학법가천1040-278(2012.01.02.)

2. 귀 학교법인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 동 인가사항을 반영한 현행 정관을 e-mail : mulnet1052@mest.go.kr로 제출 바람.

【 인가사항 】

학교법인 가천학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가천대학교
2. 신명여자고등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번지에 둔다.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3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3인

②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한다.

제19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가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
2.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
3. 법인에서 추천하는 2인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7장 직 제

제2절 가천대학교

을
나
제
기
호
증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통합 후 통·폐합되는 학과(전공)의 재학생들이 교육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통·폐합되는 학과(전공)학생들을 위해, 2015년 2월까지 학과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통합 전에 입학한 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통합 전 해당 대학의 학칙을 적용한다.

2) 통합 당시 통·폐합되는 학과(전공)학생들을 위하여, 2015년 2월 28일까지 교육과정을 유지한다.

3) 통합 전에 입학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학과(전공)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학교 존속기간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교육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통합대학교 및 통·폐합되는 학과(전공) 학생들의 학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무학사팀장, 학사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등 수업담당, 학적담당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사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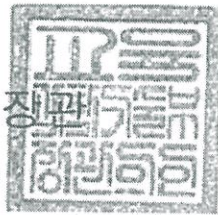
③(행정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2012년 3월 1일자로 전원 가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④(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등 임기가 확정되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1일자로 전원 가천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⑤(보유시설 및 설비 등 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시설 및 설비 등의 재산은 2012년 3월 1일자로 가천대학교로 귀속한다.

⑥(기타) 학위수여 및 소속대학, 계열변경 등에 대한 경과조치는 학칙으로 정한다.
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수신자 학교법인가천학원이사장, 학교법인경원학원이사장

주무관

전형은

행정사무관

김동만

사람대학제도과 과 전결 01/30
김대성

협조자

시행 사람대학제도과-518 (2012.01.30.) 접수 경원학원-@N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www.mest.go.kr

전화 02-2100-6934 /전송 02-2100-6909 / mulnet1052@mest.go.kr / 공개

